

‘아이(愛) 서포트 운동’ 추진에 관한 협정서

강원도와 닛토리현은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주민이 서로 돕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상생사회)를 구축해 가야한다.

또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공감·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더불어 행정은 이를 위한 계발에 힘써야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양 도·현은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 실현을 목표로, 다음 내용에 합의한다.

[합의사항]

강원도와 닛토리현은, 상호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아이(愛) 서포트 운동(지역주민 모두가 다양한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며 이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추진해 가기로한다.

2014년 10월 4일

대한민국 강원도지사

최문순

일본국 닛토리현지사

平井伸治

「あいサポート運動」の推進に関する協定書

鳥取県及び江原道の両県道において、障がいの有無にかかわらず、地域住民が互いに支え合い、尊重し合いながら、共に生きる社会(共生社会)を築くことが重要である。

また、障がいのある人が障がいのない人と同じように社会参加できることが重要である。

このためには、地域住民の理解、共感及び協力が不可欠であり、行政が広く啓発していく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

このような認識のもと、両県道は、障がいの有無にかかわらず、全ての人が住みやすい社会の実現を目指すため、次のことを合意する。

[合意事項]

鳥取県と江原道は、連携して「あいサポート運動」(地域住民が、多様な障がいの特性の理解に努め、障がいのある人に温かく接するとともに、障がいのある人が困っているときに「ちょっとした手助け」を行う運動をいう。)を推進していくこととする。

2014年10月4日

日本国鳥取県知事

平井伸治

大韓民国江原道知事

崔文洵